새로 나온 음반

So Sad – Ji Bark(박지웅) / 저스트미디어 기획 / EMI 발매

뉴에이지 음악 작곡가이면서 수많은 팝페라 가수들이 탐내는 작곡가, 거기다 헐리우드에서 미래를 예의 주시하는 영화음악가, 그러면서 직접 연주까지 하는 Player이기도 한 박지웅.
그의 첫 번째 뉴에이지 앨범. 박지웅이 전곡을 작곡, 편곡, 연주, 레코딩한 이 앨범은 'Piano concerto'부터 'Lonely Dairy'까지 12트랙으로 구성되어 시공간을 넘나드는 독특한 세계로 초대하고 있다.
2003년 청룡상 작품상을 수상한 김기덕 감독의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의 음악을 맡았는데, 김기덕 감독은 그의 음악을 듣고 "Ji Bark은 천재다"라는 말과 함께 단 한 번의 수정도 없이 그대로 자신의 영화에 박지웅의 음악을 입히기도 했다.

A Floating City – Lin Hai(린 하이) / C&L Music 기획 · 발매

2003년 첫 앨범 『월광의 추억』(Moonlingt Frontier)이 국내에 발매되면서 국내 팬들과 친숙해진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린하이의 두 번째 앨범. 기존 뉴에이지 연주자들이 '자연으로의 회귀'에서 모티브를 찾았던 반면, 그의 이번 앨범은 '도시'라는 공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반 클라이번 콩쿠르 결승진출자답게 탄탄한 연주력을 바탕으로 한 이번 앨범에서도 린하이는 특유의 동양적 정서를 한층 더 세련된 어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느림3 – 여유와 휴식을 위한 음악 / BMG 기획 · 발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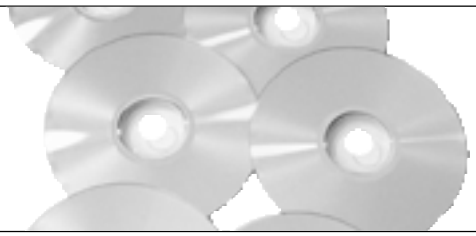
2001년에 기획된 '느림의 철학'을 담은 시리즈의 세 번째 음반. '여유와 휴식을 위한 음악'이면서 동시에 크로스오버, 월드 뮤직, 퓨전, 칠아웃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를 두루 섭렵할 수 있는 앨범으로, 입문자들을 위해 수록곡과 아티스트, 음악 장르, 앨범 이야기 등이 담긴 친절한 가이드북이 삽입되어 있다.
크로스오버 피아노 연주에 있어 1인자로 불리는 '조지 윈스턴'과 고전 음악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거장 피아니스트 '예프게니 키신'의 피아노곡과 탱고의 거장 '피아졸라'의 히트곡과 그의 추모곡, 상큼한 보사노바를 들려주는 '리사 오노' 그리고 경이적인 재즈 보컬리스트 '빌리 홀리데이'와 '카멘 맥레이'의 목소리도 만날 수 있다. 2CD 각 17곡 수록.

KBS – FM 위촉 창작음악 연주집 / 서울음반 기획 · 발매

KBS FM과 서울음반이 함께 만든 KBS – FM 위촉 창작음악 연주집
요즘 서양악기와 전통 악기가 새로운 음악을 창출하려고 한다. 이러한 시도가 거듭 되어야 바람직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악곡 · 악기 연주자 등이 서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해야 진정한 전통 음악과 서양 음악의 접근이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접근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음반에 담겨진 내용은 모두 민요의 어법에 근거해서 민족음악의 기본적이고도 풍부한 선법을 창출하려는 창작 혼이 살아 있다. 추상적인 음악적 질서에 근거하지 않고 민요에 근거삼아 구체적이며 새로운 음악을 창출하려고 한 결과물이다.

거문고 · 가야금 병창집 / 서울음반 기획 · 발매

KBS FM과 서울음반이 함께 만든 거문고 · 가야금 병창집.
병창(竝唱)이란 악기를 타면서 소리를 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에게는 가야금 병창의 전통이 있다. 주로 가야금이나 판소리를 전공했던 민속악인들에 의해 시작됐다.
가야금 병창은 원래 판소리의 유명한 대목이나 단가 · 민요 등에서 따다가 불렀으며, 해방 이후에는 박귀희, 성금연 등에 의해 새로운 병창곡들이 적잖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거문고 병창이란 전통음악의 한 분야가 아니다. 같은 현악기인 가야금에 병창이 있음에 반해 거문고에는 병창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겼던 신쾌동 선생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분야이다. 여기에 수록된 병창들은 이 분야 외 전승은 물론이요, 앞으로 병창의 연구를 위한 자료로 가치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Gipsy songs – Soprano LEW JIN KYO / 서울음반 기획 · 발매

2004년 가장 주목받는 한국의 소프라노, 이탈리아 'Roma Santa Cecilia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많은 국제성악 콩쿠르에서 입상했을 뿐만 아니라, Italia auditorium Di Padova에서 'Lamico Fritz Suzel 출연, Roma Teatro Manzoni Opera 〈La Boheme〉 Mimi역, Italia Roma Teata 〈Mary Ward〉에서 독창회, 일본 히로시마 르네상스 오페라 주최 〈Madama Butterfly〉 Cio Cio San 역 등 많은 무대를 경험하며 프리마돈나로 인정받고 있다.
빈틈을 허용하지 않는 아름답고 꽉 찬 소리와 충분한 호흡, 노래에 대한 열정 이상의 냉정한 탐색, 몸서리쳐지는 고음의 화려함, 타고난 음악성과의 결합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는 그녀의 진면모를 느낄 수 있는 앨범이다.

DESIRE – MOWG(이성현) / 서울음반 기획 · 발매

'굉장한 놈' 베이시스트 모그, 그가 뉴욕에서 돌아왔다.
음악에 대한 열망과 욕심,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뉴에이지가 주가 되면서 재즈, 펑크, 록을 넘나드는 장르를 거침없이 소화하고 있다. CD1에 실린 타이틀 곡 'Smile', 'Another Day' 등에서 베이스는 화려하게 솔로 악기로 독립하고 있으며, CD2에 실린 공연 실황 곡 'He's Gone with Wind'와 'For What'에서는 뜨거움을 이기지 못해 폭발하고 있다.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How Insensitive'와 스티브 원더가 작곡하고 제프 베이가 연주해 유명해진 'Cause We've Ended ad Lovers' 이 두 곡을 제외하고 16곡 모두 직접 작곡했다.

로망스 Special / 서울음반 기획 · 발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쉬운 음악, 우리 주변에서 늘 들려오는 음악, 바쁜 때는 들리지도 않지만 조금만 마음에 여유를 가지면 입가에 귓가에서 머무는 음악만을 모은 음반.
음반 레코딩에 사용된 미국악기인 로버트 럭, 깊은 여운과 연주자에게 민감한 음색의 반응, 넓은 다이나믹의 폭, 밸런스와 윤기, 정확한 음정에 있어 최고의 평가를 얻고 있는 이 악기의 소리 또한 감상 포인트가 될 것이다. 기타리스트 김남중이 연주했다.
스페인 민요 '로망스'를 비롯하여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타레가), '탱고 엔 스카이'(다이엔스), 바흐의 '프렐류드', 카르도스의 '밀롱가' 등 19곡이 수록되어 있다.

판소리 · 단가 / 서울음반 기획 · 발매

KBS FM과 서울음반이 함께 만든 판소리 · 단가.
이 음반에 담긴 은희진의 '심청가'는 전형적인 서편제 심청가로 시김새가 훌륭하고 장단의 부침새가 변화무쌍해서 모든 사람이 즐기는 판소리이다. 정응민 바디가 조상현에게 물려지고 다시금 그 소리가 은희진에게 계승되었기 때문이다. 판소리에서 '제'를 논하는 것은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대단히 긴요했으나 오늘날은 사정이 달라져서 여러 가지 소리가 뒤섞이고 있는데, 이번 은희진의 '심청가'는 아직 그러한 현상이 드러나지 않아 올곧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박초월 바디를 받았으나 서편제 정광수 바디의 흔적도 남아있는 전정민 명창의 '흥보가'도 함께 들을 수 있다.

젊은 풍류 / 서울음반 기획 · 발매

KBS FM과 서울음반이 함께 만든 젊은 풍류.
젊은 연주자들의 새로운 편성으로 짧게 연주한 풍류음악을 수록했다. 이 음반은 짧게 압축한 풍류음악이라는 것과 새로운 편성으로 시도되고 연주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음반에서는 반복되는 선율은 들어냈지만, 원곡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선율은 충실히 연주한 음악으로 재구성하였다. '여민락'은 90여 분 소요되던 것을 10분 정도의 길이로 정리하였고, 40여 분 길이의 '영산회상'은 15분 길이로, '수요남극'과 '황하청'도 5분 정도로 축소하여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녹음하였다. 생소병주로 연주한 '수룡음(롱)'은 1장과 2장 그리고 중여음까지 연주했고, 가곡은 가장 빠른 템포의 편소대엽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음향적인 면에서 기존의 음악보다 상당히 부드러워졌고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다.